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12시 2시
오후 (4부) 2시 4시
금요일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후 (3부) 2시 4시
주요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8월 25일 (제704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단 법의 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이다.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신앙에도 적용된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다(롬3:10). 죄인에게는 대가가 있는 법.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갈3:13). 그러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원죄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는 매일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회개한 것을 다 사하시고 다시 거론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더불어 일상사를 말하지만, 특히 아내들이 남편이나 자녀들의 예전 잘못을 거듭 말하곤 하는데, 잘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주 거론하면 반발만 산다. 진정한 용서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시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의 내시경을 밝혀라

5일부터 시작된 3주간의 하계산상집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주차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을 찾은 성도들을 목사님은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 성상을 찾은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시경으로 몸속을 들여다보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높이

생각의 주머니를 열고 나오는 것이 말(言)이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여러분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8장을 통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시기 때문

아 사무실에 ‘세계는 내 교구다’라는 표어를 써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15년 만에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길 원합니까? 이제 말을 바꾸십시오.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힘을 기르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내 삶에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대역사로 은혜가 넘쳤던 2013 하계산상집회(8.5-22,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면 우리의 삶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회가 문제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원인이 다른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4-15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사화복(生死禍福)은 밖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런 우리의 삶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회가 문제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원인이 다른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4-15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사화복(生死禍福)은 밖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영·혼·육이 강건해진 성도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배 전 한 시간 반의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요즘 힐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도가 나를 치유하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서울예수중심교회 오경수 집사)

“방언을 받지 못해 늘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번 기도원 집회 첫 시간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싸울 좋은 무기를 얻은 느낌입니다.”(백스코에수중심교회 이진정 자매)

“저는 집회 내내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육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너무 좋습니다.”(오산예수중심교회 정금옥 권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예수 이름으로 똬신을 쫓으며 각색 병자를 고쳤다



자신의 병이 예수를 믿게 된 축복의 기회였음을 간증한다



고추를 따고 잡초를 뽑으며 성산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5:41)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즉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대헌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곧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도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완벽한 윤리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 41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자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마5:41).

첫째, 이 말씀은 '의무 이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보수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의무도 못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주어진 의무만큼만 일하는 사람이며, 셋째는 주어진 의무 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임원이라면 이 중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말하나마나 세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정신계몽가인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리보다 십리를 걸어라'는 말은 성공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이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직원을 승진시킬 때 학력이나 인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리보다 십리를 걷는 자'를 승진시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플러스 알파법칙'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법칙'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찰스 스웬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했던 카네기보다 찰스 스웬은 항상 먼

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느 상사가 좋아하겠고, 그 사람에게 누가 큰일을 맡기겠습니까? 다섯 번 돌아볼 것 열 번 돌아보는 사람, 다섯 번 연구할 것 열 번 연구한 사람이 승진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a',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삶입니다.

둘째, 다섯 번 공부할 것 열 번 공부하는 '노력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배우가 욕을 많이 하는 역을 맡았는데, 그는 욕이 입에 뱉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명배우가 괜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차사순 할머니가 960

여 회의 도전으로

운전 면

허증을

판사

건



이 세계적 인 일화가 되었던 적이 있

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다섯

번 해서 잘 안 되면 열 번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뭐든 다 된다는 말입니다. 즉 5시간 공부할 것을 10시간 공부하면 우등생이 되고, 5일 일할 것을 10일 일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일이 쉽고, 그 일에 성취 뿐 아니라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5시간 훈련할 것을 10시간 하자하면 금메달을 못 딸 리 없고, 열 길의 땅을 팔 것을 스무 길 파면 건수대신 생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인 문제든, 혼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배 노력하고, 배 훈련하고, 배 연구하고, 배 두드리고, 배 찾는 자는 남들보다 배나 잘 살고, 배나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배나 기도했고, 배나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 젊은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 팔

리지 않자 피카소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왜 제 그림이 안 팔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그림은 그리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데 말입니다. 그 비법 좀 가르쳐주시겠어요?" 그러자 피카소가 젊은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 작품을 얼마동안 그리느냐 물었네." "대체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가? 나는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네. 자네도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3년 이상 몰입해보게. 그러면 그리는데 즉시 다 팔리게 될 걸세. 3일 걸린 작품은 3년

이 되어도 안 팔리지. 명작은 노력을 먹고 탄생되는 거라네."

거 목은 하

루아 침

에 이

뤄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번 더 생각하면 실언하지 않고, 무언가를 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면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다리로 두드리보는 심정으로 조금씩 하고 만사 심사숙고하면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다섯 개 준비할 것 열 개 준비하는 '여유 있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즉 1억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짜리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2억을 준비해놓으면 걱정 없이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갑장 5포기할 것을 10포기 하면 남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에 여유분을 준비하면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경제공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산상집회에도 저는 성도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성도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색한 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하지만, 반대로 인색한 부모도 자식이 싫어하는 법입니다.

다섯째, 다섯 개 줄 것 열 개 주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0절 말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죄인들도 그러다'는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함에 있어서는 남들이 주는 다섯 개 사랑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잡고 내 삶에 적용시킨다면 반드시 영·혼·육의 성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매사 주인의식으로 의무 이상을 하라

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항상 일터에 남아 뒷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런 그를 카네기는 눈여겨 보았습니다. 드디어 회사에서 보너스가 지급되던 날, 찰스 스웬은 100만 불이라는 거액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찰스 스웬 뿐만이 아니라 동료들도 놀라 아리둥절하고 있을 때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회사와 맺은 약속의 시간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100만 불은 주어진 의무보다 더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후에 찰스 스웬은 노무자에서 일약 미국 최고의 철강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틸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일용잡부였지만 '오리보다 십리를 걷는 태도'로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6시 '땀' 치면 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는 일 이상은 절대 안하는 사람

보약은 건강할 때!

건강할 때 먹은 약은 보약이 되지만 건강치 못할 때 먹은 약은 되레 화가 된다. 나는 건강치 않을 때 녹용을 세제 가까이 먹었다가 그것이 오히려 해롭게 작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약콰이었던 나는 녹용의 위로 뻘뻘오르는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여 없던 병까지 얻었다.

동일하게 영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직장에서 소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일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부터 나는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 그런데 유독 한 명의 직원이 나를 힘들게 했다. 말씀을 전할 때면 다른 사람은 괜찮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유독 그만이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을 무릎에 꼭 박은 상태로 고독스럽게 앉아 있는 것이다. 그는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같은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수개월을 그도, 그것을 보는 나도 힘겨워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쏟아냈다. 자신을 직접 불러서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말씀으로 빙빙 돌려서 말하느냐는 항의였다. 아마 그는 내가 자신을 혼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그저 늘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뿐이었었는데, 그 즈음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청함을 받았으면 탄핵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이 불쑥이 된 것이다. 아마 자기가 청함 받지 못한 자라 여긴 모양이다. 그 후 은혜를 받지 못하던 직원은 나를 피했고, 나에 대한 마음이 생겼던지

예절인 인사까지도 잊은 듯 목이 뻣뻣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아직 들을 만한 귀가 아니고, 아직 볼 만한 눈이 되지 않았을 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치 내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녹용을 잘못 먹고 힘들어했던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 영혼이 아직 말씀을 받아들이 만큼 건강하지도, 장성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좋다고 너무 과한 약을 처방해서 먹인 셈이다.

가끔 아직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너무 강제로 믿음을 강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믿음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겠지만,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겠다. 되레 독이 될 수 있으니. 좋은 것인데 왜 안 먹느냐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체력, 영력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좋은 땅, 곧 옥토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진리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돌을 거두고 잡초를 뽑아야 옥토가 된다. 내가 이 작업을 생략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먼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행 마음과 올바른 생활로 마음의 문지방을 열고, 길지 않게 말씀으로 그를 단련해야 한다. 그 후에 '예수'니, '교회'니 하면 좋겠다. 사랑과 배려로 영혼이 완치된 후에 믿음으로 이끌면 나와 같은 일은 없을 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노후하는 필요하다.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웃아, 네가 먹으려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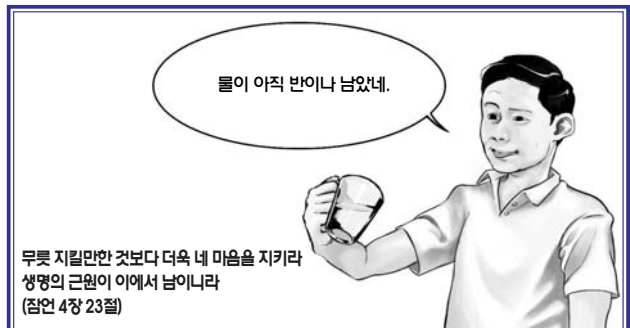
학문이 깊고 검소하기로 유명한 선비에게 어느 날, 서찰이 하나 당도했다. 정승 댁에서 회갑연을 하니 왕립해주 시면 고맙겠다는 것이다. 그레 초청을 받은 터라 평소엔 입던 수수한 옷이라도 정성스레 다림질하여 길을 나섰다. 해질녘이 되어 정승이 산다는 동네 어귀에 이르니 초청을 받아 찾아온 사람들이 벌써부터 복세통을 이루고 있다. 담장 너머로 풍악이 넘쳐나고 그 주위로 형형색색의 등이 걸려 있어 꽤나 걸쭉한 터라 평소엔 입던 수수한 옷이라 하며 문을 들어서려는데, 문지기가 문을 막는다. 웃이 남루해사. 몇 번을 실랑이하다, 정승이 보낸 서찰을 직접 보여주니 마지못해 비켜선다. 그 불량한 태도에 내심 불쾌했지만 남의 집 잔치에 이렇다 저렇다 뭐라 하기도 하여 잠자코 있는데, 사정은 밖이나 안이나 별한 다름이 없다. 남루한 옷차림의 선비를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묻는 이도

없고, 심지어는 하인들마저도 은근히 무시하기 일쑤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구석에서 초라한 잔치상을 받던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 당장 옷을 갈아입었다. 한 벌이었지만 가장 좋은 옷으로 말이다. 그리고는 다시 잔치집으로 가니 문지기가 깍듯이 인사를 한다. 연회장에 들어서니 그 선비에게로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한다. 그리고 상을 펴는데 신선로에 각종 부침이며 고기에 이름도 모를 음식이 그득하여 급제라도 상다리가 휘어질 판이다. 그 모습을 예의 바라만 보던 선비는 혀를 끝끝 차터니 갑자기 웃을 뻔한 게 아닌가! "웃아, 됐다. 네가 이 음식을 먹으려무나. 여기는 사람보고 주는 게 아니고 웃을 보고 주니 말이다." 아는가!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요7:24).

꼭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한다. 외면보다 내면이 맛나고 멋스러워야 한다.

예수중심편집실



::Praise The God::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되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되다

이 찬송의 작사자 파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여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9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 "하나님, 만악 제게 시력을 주신다 해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 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장성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녀는 시를 쓰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지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비록 세상의 아름다운 것 하나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본 크로스비 여사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시편권은 하늘에 있다' (빌 3:20)고 외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2)고 고백하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달려갔다. 크로

스비 여사 또한 하늘나라를 바랐기에 감 감한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으리라.

그러니 왜 내 삶이 이런가 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었어, 해가 뜨면 사라질 아침 이슬 같은 잠시잠깐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털 가졌다고 해서, 완전히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다. 예수를 진정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닦듯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라도 은혜를 회복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성실히 달려가라! 그리고 크로스비 여사처럼 현재에 감사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한 TV프로그램 강연에 나왔던 영어강사의 이야기에요. 그는 젊은 나이에 아이들 가수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무대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공평하고 고된 생활에 현실을 느끼고 연예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한 그는, 토익(TOEIC) 시험에서 700점을 넘으면 휴가를 보내준다는 말에 뒤늦게 영어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본 시험에선 목표 점수보다 한참 낮은 점수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연에게 생활을 통해 겪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생 각하며 남들보다 한 시간 늦게 자고 한 시간 일찍 일어나 공부에 매진한 결과, 군 전역을 앞두고는 900점이 넘는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는 전역 후 총로에 있는 영어학원에 강사로 지원하여 합격한 후, 첫 강의에 겨우 1명의 학생을 놓고 시작했지만, 그 한 학생의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받아내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한 수업에 300명을 놓고 강의하는 인기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절대 쓸모 없는 경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젊어서 교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요.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었, 지금 겪는 실패와 시행착오가 언젠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재식 전도사

blessedmbc@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신앙의 열등생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성황리에 잘 끝났다. 이맘때가 되면, 오래전 예루살렘교단 전국 청소년연합수련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나의 학창시절, 부모님은 학원을 운영하셨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학원의 학생들은 그 당시 인근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이름난 아이들이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부모님들도 학교 졸업은 목표로 출석만 제대로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이었다. 나의 부모님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고, 교회에 양해를 구해 학원생들을 전부 청소년연합수련회에 참가시키셨다. 하지만 학원생들은 기도원 성전 뒤뜰에서 밤이면 모기향을 가장한 담배 연기를 몰래 내뿜고, 식사 시간에는 밥을 먼저 먹겠다고 새치기를 일삼아 착하기만 한 예루살렘 중고등학생들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주었었다. 결국 수련회 마지막 밤, 작은 말쑥이 생겼다. 학원생들을 못마땅

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고등학생에게 학원생들이 시비를 걸었고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날 밤, 예루살렘의 고등학생들은 억울함에, 학원생들은 원장선생님께 야단을 맞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생활 태도도 불량, 복장도 불량, 마음가짐도 불량이었던 그들에게도 절실히 합과 간절함은 있었던 듯하다. 찬양 시간에는 객기를 부리듯 목청껏 찬양을 따라하고, 기도 시간에는 저런 다리 때문에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는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무사 졸업과 상급학교 진학, 그리고 몇몇은 군대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 어쨌든 수련회에서의 기도 덕분에였는지 대부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무사히 졸업도 했다. 십년도 더 지난 지금, 이제는 한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된 학원생도 있고 방송매체에서 이름을 날리는 가수, 배우, 모델이 된 이들도 있다.

주기도문도 모르고, 찬양 한소절도 다 따

라 부르지 못하는 신앙의 열등생들이었던 그들에게 수련회는 어떤 의미였을까? 놀라운 것은, 그 때에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하나님이라며 말장난을 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목실한 크리스천이 되어 한 가정을 구원한 아이도 있고, 방송에서 당당히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세상에 믿을 건 돈과 자신뿐이라고 했던 아이가 목사님이 되어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한 번 열등생은 영원한 열등생이 아니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가랑비에 속옷이 젖듯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조금씩 자라고 있으니 마음을 더 굳건히 하라고 말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세계 최고의 여론조사기관인 미국의 갤럽이 최근에 발표한 국민행복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48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97위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하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은 물라보게 향상되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 가보면 의외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짓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으므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부자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 때 대한민국에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로또복권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어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가정이 깨어지고 패가망신했다는 소문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복권에 당첨 된 후 패가망신한 가정을 향해 이웃 주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돈벼락도 벼락이야. 벼락 맞으면 죽어." 오히려 돈이 그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

가오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벼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밖에 살수 없기에 일생(一生)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9:27)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죽을 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이요, 불신자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가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문화의 리더(Leader)로 양육하자

문화란 인간과 동물의 한계를 구분지어 주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지며, 어느 특정한 영역의 고유한 산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가 공유하는 유무형의 자산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종종 우리 크리스천은 '좁은 문'이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며 이 시대와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 문화에 대한 완고한 생각은 자칫 우리 자녀들을 문화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의 부진자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야 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나 연주회, 그리고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한다. 문화, 예술, 정치, 사회의 주축이 되는 그들처럼 우리의 자녀

들도 문화의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면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의 흐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안보고 안 듣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자부할 수 있는 문화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을 기억하자. 세상의 문화를 두루 섭렵하여 지배하고 정복해야 그 문화를 다스리고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섭렵은 더 나은 크리스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문화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들이 앞으로 성장하여 어떤 분야,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소중한 본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서있는 그 자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문화의 감각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많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의 특성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린다면, 우리 자녀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대에 낙후된 고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각 분야의 사람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문화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자유

oh free@hanmail.net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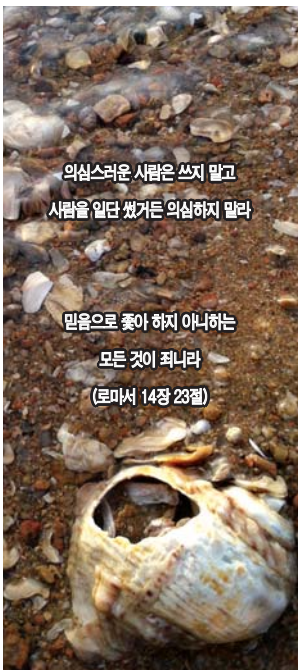
Q: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복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연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20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편이나 전도서에 많이 기록되었는데, 도덕적인 법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된 노아의 경우에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당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의인이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아는 죄가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었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자다가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하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창9:21).

따라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여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참신앙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사람을 일단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